

기독교노인의 생활실태와 삶의 질 연구  
-비장애, 장애인 비교를 중심으로-

백은령(충신대 사회복지학과)

전동일(한국장애인개발원)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노인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독교노인의 생활 실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와 문화, 경제 상태 등 일상적인 삶의 전반적인 실태와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누구나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로 장애를 경험하게 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노인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와 교회공동체 내에서 그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들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와 교회의 사회적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독교노인을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비장애노인과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의 생활실태와 삶의 질의 상태를 탐색하고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로, 전국노인실태조사는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에 이어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적인 조사이다. 2011년 조사는 전국 3,142개 조사구의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3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국가정책연구기관의 전국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본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은 전체 노인 중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을 1차적으로 선별한 후 등록장애판정 유무 변수를 이용하여 비장애노인과 장애노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장애노인과 장애노인의 생활실태(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및 행태, 경제상태, 여가 및 사회활동, 노후생활 및 인식 등)비교, 기독교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결과 및 함의를 결론부분에서 제시하였다. 함의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독교노인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섬기는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야 할 사회적 실천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가 사회적 거룩을 행하기 위해 행해야 할 활동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연대하여 행해야 할 구조적, 실천적 활동들에 대해 모색하였다.